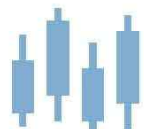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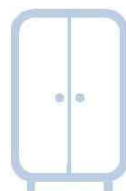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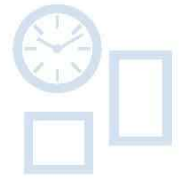
WP 20-04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

| 유현아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원 (hayou@krihs.re.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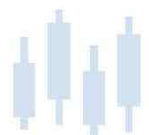


※ 이 Working Paper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저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연구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저자의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고, 인용 시에는 저자 및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례

01 서론	05
02 대도시권 인구분포 특성과 성장단계 진단	09
03 대도시권의 공간적 분화 과정	17
04 결론 및 시사점	27



0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역사적으로 도시가 성하고 흥하는 이유에는 권력의 지배방식 변화가 반영되어 왔기에, 국내 대단위 산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 등 거점 개발 중심의 국가 주도 성장정책은 대도시권으로 인구집중 결과를 가져옴

- 산업화 및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적 결정은 1960~1970년대 성장거점이론(Growth Pole Theory)을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대단위 산업단지 집단을 지방 도시에 위치시키고 경제적 선도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됨
- 국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1970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4개 도시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22개의 도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성장했으며, 이 중 19개 도시는 특별·광역시 포함하여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을 구성하는 주요도시임¹⁾
- 국내 대도시권을 구성하는 주요 도시 인구성장의 주요 원인은 미국 교외화 현상과 같이 기존 중심도시에서 파생되어 나타난 중산층의 거주욕구에 의한 시장의 움직임 차원보다는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지의 정책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음

■ 지속적인 대도시의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노동력의 집중은 대도시의 팽창을 가져왔고 대도시와 주변지역은 밀접한 관계를 통해 대도시권을 형성해 나갔으므로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변화하고 있는 공간적 특성들에 대한 고찰과 이해가 필요함

-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은 국민의 약 80%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각 대도시권을 구성하는 각 시·군들의 인구규모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며, 대도시권의 공간영역 또한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는 등 국내 대도시권 발달은 대도시권별 다른 성장단계를 지나고 있음

1) 22개 대도시: 서울을 포함한 7개 특별·광역시와 경기도 9개 도시(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용인시, 화성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시, 김해시, 포항시) 그리고 전북 전주시이며, 이중 천안시, 포항시, 전주시를 제외한 19개 도시는 특별·광역시와 함께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을 구성하는 주요 도시임

- 그리고 전체 대도시권을 구성하는 인구규모 비중은 특별·광역시 경우 1995년 50%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등과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등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대도시권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중심도시와 이를 둘러싼 주변지역이 하나의 대도시권 형태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진단이 필요

-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속성인 인구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대도시권별 인구분포 및 성장단계 진단과 통근·통학 중심의 통행 패턴 검토는 대도시권별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 대도시의 공간적 팽창이 이뤄지면서 행정구역에 의한 통계만으로는 도시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관리 역시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김흥순 2019, 3)함에 따라, 대도시와 대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 간의 관계에 관한 관찰은 점차 더욱 더 중요한 국토관리의 관점이 될 것임

- 김현수 외(2019)는 과거 고도 압축 성장과 이촌 향도 시대에는 도시개발 및 육성전략이 국토정책에서 효율적이었으나, 저성장과 인구감소 시대에는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대도시권 단위의 관리가 국토이용 효율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적절함을 지적한 바 있음
- 특히, 대도시권을 구성하는 도시 간의 상호작용 관찰은 대도시권 변화와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관계 속에서 인구분포 변화 특성 및 공간적 분화과정 등을 분석하여 저성장시대 대도시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공간적 범위)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행정구역상 총 65개 시군임

- (대도시권 범위) 대도시권을 구성하는 도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활용함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설정) 이 연구는 대도시권별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인구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공간구조를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대도시권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상위도시 기준으로 중심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를 설정하고, 그 외 지역은 주변지역 명칭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함

- **(연구의 시간적 범위)** 인구총조사의 2010년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는 1975~2010년 시계열 연계 자료와 1995년과 2015년 각 연도 인구총조사 자료 이용
- **(연구의 내용적 범위)** 대도시권 인구성장 과정, 대도시권 인구분포 변화의 특성 고찰과 통근·통학권 시계열의 변화추이 분석을 통한 대도시권의 공간적 분화 과정임
- **(연구방법)** ArcGIS를 활용한 공간분석, 인구총조사의 연도별·연령별 통계 및 표본부문 통근·통학 통계분석, 대도시권 공간구조 등에 관한 문헌검토 등임

표 1 연구의 대도시권 분석 범위

구 분	대도시권 분석 범위		
	중심도시	주변지역	권역별 공간 규모
수도권	서울 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 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	
대구권	대구 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원군	
광주권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했으며, 예외적으로 경남 밀양시는 이희열 외(2007) 연구를 참고하여 부산·울산권에 포함.

출처: 저자 작성.

02 대도시권 인구분포 특성과 성장단계 진단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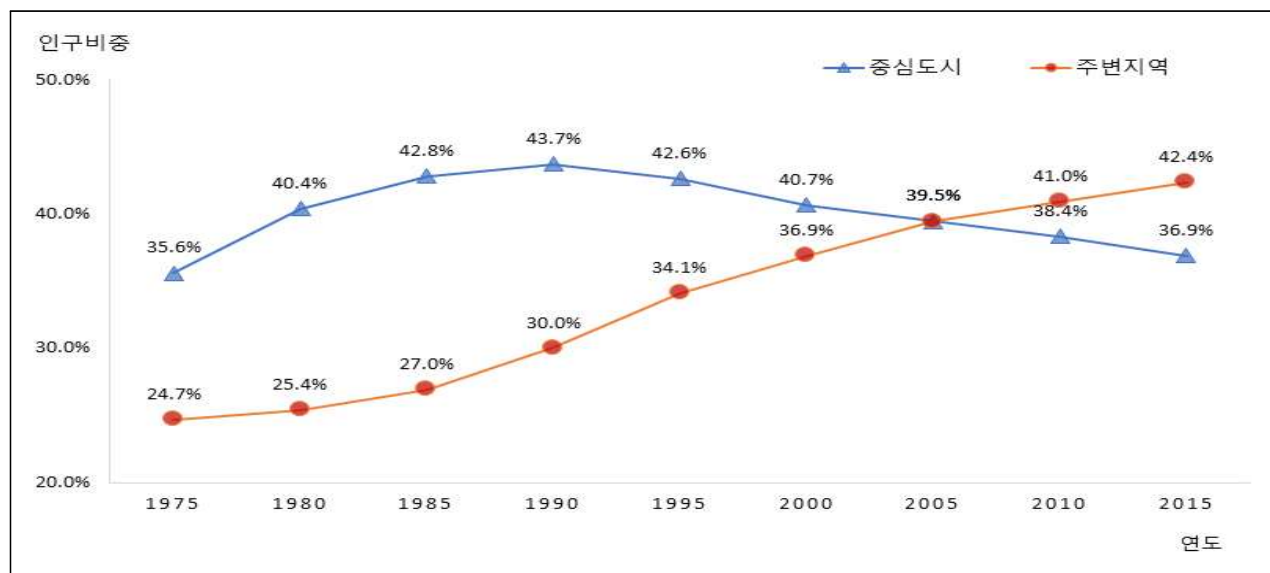
- 대도시권은 종래의 도시경계를 뛰어넘어 도시 주변의 넓은 범위에 걸쳐 도시의 여러 기능과 활동이 전개되어 대도시와 주변 교외지역 간 통근 등을 이유로 사회경제적 결속력이 강화되면서 하나의 공간적 영역으로 인식(권용우 외 2016, 244)
 - 대도시권은 통상 중심도시인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구성됨
- 국내 대도시권은 대도시 주변 신도시 건설 및 행정구역 확장 등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 조치로 인한 대도시 확장과 함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생활양식 변화가 원인으로 작용하여 형성되어 옴
 - 수도권 1·2기 신도시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망 건설 및 거미줄 같은 도시철도의 연결은 서울 주변지역으로 도시 확장을 가져온 가장 대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뿐만 아니라 6개의 광역시는 면적의 증가를 통한 공간적 확장 과정을 거쳐 왔는데, 서울시는 1973년에 지금의 행정구역 모습을 갖추었고 대전시는 1980년대에, 부산시와 대구시, 인천시는 1990년대에 각각 인접해 있는 군(대전-대덕군,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옹진군)을 편입하며 성장해 왔음
 - 교통의 발달과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생활양식의 변화는 사무실과는 거리가 멀어도 좀 더 저렴한 지가와 쾌적한 장소를 가진 주거환경을 찾게 함
-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한 대도시권 내 인구분포 변화 분석은 국내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의 인구분포 특성 및 성장단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임
 - 이를 위해 인구총조사 통계를 통해 우선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인구비중 변화, 인구밀도, 연령별 인구구조를 시기별(1995·2015년)로 비교하고, 클라센과 펠링크(Klaassen & Paelinck)의 도시성장단계 이론에 따라 대도시권별 성장단계(1975~2015년)를 진단하고자 함

2) 대도시권 인구분포 특성

■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인구비중 변화 비교

- 전국에서 차지하는 대도시권 중심도시의 인구비중은 1990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권 주변지역은 괄목할만한 인구성장세를 나타냄(〈그림 2〉 참조)
- 이러한 대도시권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2015년도 기준 대도시권의 전체 인구는 약 4천만 명이며, 인구밀도 평균은 1,265명/㎢임(〈표 2〉 참조)

그림 2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전국 대비 인구비중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표 2 대도시권, 중심도시, 주변지역 현황

구 분		1995년				2015년			
		합계	평균	최대	최소	합계	평균	최대	최소
대도 시권 전체	인구(천 명)	34,246	527	20,189	1,591	40,497	643	25,274	1,774
	면적(km ²)	32,016	493	11,856	3,262	32,016	493	11,856	3,262
	인구밀도(명/km ²)	1,070	1,070	1,703	259	1,265	1,265	2,132	317
	가구(천 가구)	9,848	152	5,803	340	15,356	236	9,519	550
	주택(천 호)	6,530	100	3,739	280	12,378	190	7,429	505
	아파트(천 호)	2,856	44	1,668	227	7,940	122	4,716	302
중심 도시	인구(천 명)	19,025	3,805	10,231	1,258	18,860	3,772	9,904	1,503
	면적(km ²)	3,299	660	884	501	3,299	660	884	501
	인구밀도(명/km ²)	5,766	5,766	16,904	2,358	5,716	5,716	16,364	2,791
	가구(천 가구)	5,470	1,094	2,971	355	7,362	1,472	3,915	573
	주택(천 호)	3,289	658	1,688	244	5,651	1,130	2,793	469
	아파트(천 호)	1,477	295	716	131	3,599	720	1,637	338
주변 지역	인구(천 명)	15,221	254	2,308	15	21,637	361	2,890	22
	면적(km ²)	28,717	479	1,325	33	28,717	479	1,325	33
	인구밀도(명/km ²)	530	530	14,584	48	753	753	15,788	36
	가구(천 가구)	4,378	73	660	4	7,994	133	1,067	10
	주택(천 호)	3,242	54	509	4	6,727	112	942	11
	아파트(천 호)	1,379	23	247	0.12	4,341	72	577	0.48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국토교통부,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 대도시권별로 중심도시 인구비중(%)을 보면, 광주권을 제외한 4개 대도시권이 1995년에 비해 2015년 중심도시 인구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3〉 참조)
- 수도권의 경우는 2015년 서울시 외 인천·경기 지역의 인구비중이 60.8%로 서울시 비중을 초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국내 대도시권 중 수도권이 신도시 건설과 교통의 발달 등을 통한 주변지역으로의 분산이 가장 많이 된 권역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광주권은 1995년, 2015년 두 기간 모두 중심도시의 인구비중이 5개 대도시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광주권의 인구분포가 중심도시 중심으로 집중하고 주변지역으로 는 덜 확산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구규모보다 도시의 집중 정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인구밀도(명/km²) 지표를 보면 5개 대도시권 모두 중심도시의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995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수도권 및 부산·울산권은 중심도시의 인구밀도 감소와 주변지역 인구밀도 증가현상이 나타났음
 - 대구·대전권은 중심도시 및 주변지역 인구밀도가 모두 증가
 - 광주권은 중심도시 인구밀도 증가와 달리 유일하게 주변지역 인구밀도 감소현상이 나타 났음

표 3 대도시권별 중심도시-주변지역 간 인구비중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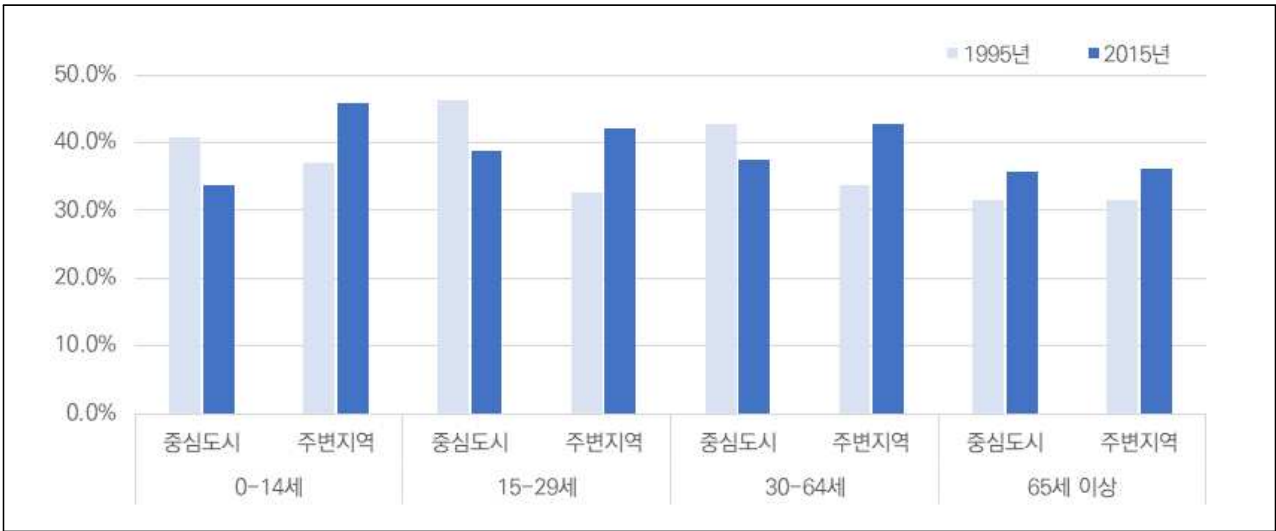
권역	연도	인구(천명)		인구비중(%)		인구밀도(명/km ²)	
		중심도시	주변지역	중심도시	주변지역	중심도시	주변지역
수도권	1995	10,231	9,958	50.7	49.3	16,904	2,507
	2015	9,904	15,370	39.2	60.8	16,364	3,307
부산·울산권	1995	3,814	2,832	57.4	42.6	4,954	594
	2015	3,449	3,423	50.2	49.8	4,479	768
대구권	1995	2,449	913	72.8	27.2	2,772	275
	2015	2,466	1,120	68.8	31.2	2,791	351
광주권	1995	1,258	333	79.1	20.9	2,509	123
	2015	1,503	271	84.7	15.3	2,999	97
대전권	1995	1,272	1,185	51.8	48.2	2,358	228
	2015	1,538	1,454	51.4	48.6	2,851	322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연령별 인구구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5년과 2015년의 인구총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함
 - 분석결과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전국 대비 연령별 인구비중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는데, 중심도시에서는 고령인구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인구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주변지역은 모든 연령대의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과 <표 4> 참조)
 - 특히 15-29세와 30-64세 연령의 청소년과 청장년층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심도시보다 젊은 연령대 지역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권에 집적된 일자리와 연관된 결과로 판단됨

그림 3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연도별·연령별 전국 인구비중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표 4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연도별·연령별 전국 인구비중

구 분	0-14세		15-29세		30-64세		65세 이상	
	중심도시	주변지역	중심도시	주변지역	중심도시	주변지역	중심도시	주변지역
1995년	40.9%	37.1%	46.3%	32.6%	42.8%	33.8%	31.5%	31.5%
2015년	33.7%	45.8%	38.9%	42.2%	37.6%	42.7%	35.7%	36.2%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 대도시권별로 연령별 인구비중(%)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1995년과 2015년을 기준으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으로 나누어 대도시권별 연령별 인구비중 증가 추세를 살펴봤음
 - 수도권은 인천·경기 지역에서 전 연령의 인구비중이 1995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증가하는 추세였고, 부산·울산권은 15-29세, 30-64세의 인구비중이 울산을 포함한 부산 주변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구권은 0-14세, 15-29세의 인구비중이 1995년과 비교하여 2015년 대구 주변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권은 다른 대도시권과 달리 1995년과 비교하여 2015년 주변지역이 아닌 중심도시에서 0-14세, 15-29세, 30-64세의 인구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변지역은 15-29세, 30-64세의 인구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 대전권은 65세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모두 1995년과 비교하여 2015년 전국 인구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5개 대도시권 중에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모두에서 인구성장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사됨

표 5 대도시권별 연도별·연령별 전국 인구비중

(단위: %)

권역	연도	0-14세		15-29세		30-64세		65세 이상	
		중심도시	주변지역	중심도시	주변지역	중심도시	주변지역	중심도시	주변지역
수도권	1995	27.1	32.0	32.1	26.7	30.3	29.2	25.9	28.4
	2015	21.0	41.3	25.0	37.0	24.6	38.0	25.5	33.7
부산·울산권	1995	10.5	9.1	11.3	7.8	11.5	8.1	10.4	8.0
	2015	7.3	9.1	8.3	8.1	8.7	8.6	10.6	7.6
대구권	1995	7.0	2.5	7.4	2.5	7.1	2.6	6.7	4.9
	2015	5.9	2.7	6.2	2.8	6.2	2.6	6.6	3.4
광주권	1995	3.9	0.7	4.0	0.9	3.4	1.0	3.5	2.8
	2015	4.1	0.6	4.1	0.5	3.6	0.6	3.5	1.5
대전권	1995	3.9	3.3	3.9	3.4	3.6	3.3	3.5	6.0
	2015	4.1	3.9	4.3	3.6	3.7	3.4	3.5	4.2

주: 외국인 제외.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3) 대도시권별 중심도시-주변지역 성장단계 진단

■ 대도시권의 구조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지역을 크게 중심부와 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성장 과정을 도시화 → 교외화 → 역도시화 등으로 변화된다’는 클라센과 팰링크(Klaassen & Paelinck)의 도시성장단계 이론(권용우 외 2016, 252)에 적용하여 분석함

- 이 이론은 대도시와 대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 간의 인구성장 과정을 통해 대도시권의 도시화 내지 교외화 등 성장단계를 진단해봄으로써, 대도시권 내부의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성장단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클라센과 팰링크의 대도시지역성장단계론 과정은 <표 6>과 같은데, 대도시권은 일반적으로 성장기인 도시화·교외화 단계를 지나 쇠퇴기인 역(탈)도시화단계 과정을 겪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클라센과 팰링크의 대도시지역성장단계론을 적용하여 국내 대도시권의 성장단계론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대도시권의 성장단계는 성장기 교외화의 상대적 분산단계로 파악됨에 따라 5개 대도시권 모두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장기 교외화의 상대적 분산단계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모두가 성장하는 속에서 중심도시의 성장보다 주변지역의 인구성장이 높은 단계라 할 수 있음

■ 시대적으로는 대도시권별 상이한 성장단계를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수도권과 부산·울산권은 가장 먼저 대도시권화가 이뤄지면서 1990년대 들어 중심도시의 인구감소 속에서 절대적인 주변지역 성장과정을 겪었음
- 대구권은 중심도시로의 인구집중화 이후 2000년대 초반 대도시권 전체의 쇠퇴기 과정을 겪었고, 대전권과 광주권은 대도시권 성장을 중심도시가 선도해오다가 최근 주변지역의 인구증가추세가 나타나며 대도시권 확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됨(<표 7> 참조)

표 6 클라센과 팰링크의 대도시지역성장단계론

구 분	성장기				쇠퇴기	
	도시화		교외화		역(탈)도시화	
	절대적 집중	상대적 집중	상대적 분산	절대적 분산	절대적 분산	상대적 분산
중심도시	+	++	+	-	-	--
주변지역	-	+	++	+	+	-
대도시권전체	+	++	+	+	-	-
대도시권 성장단계	①	②	③	④	⑤	⑥

주: + 증가, ++ 대폭 증가, - 감소, -- 대폭 감소.

출처: 권용우 외 공저 2016, 253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

표 7 국내 대도시권 성장단계 진단

구 분		기간별 인구증가율(%)								대도시권 성장단계 진단
		75-80	80-85	85-90	90-95	95-00	00-05	05-10	10-15	
수도권	중심	21.4	15.2	10.1	-3.6	-3.3	-0.8	-0.3	1.1	<p>75-80 80-85 86-90 90-95 95-00 00-05 05-10 10-15</p> <p>[기간별 성장단계 : 수도권]</p> <p>→ 주변지역의 지속적 성장</p>
	주변	22.2	25.3	29.0	24.9	15.1	13.0	8.5	9.5	
	전체	21.7	19.0	17.5	8.6	5.8	6.6	4.7	6.0	
	중심	+	+	+	-	-	-	-	+	
	주변	++	++	++	+	+	+	+	++	
	전체	+	+	+	+	+	+	+	+	
부산·울산권	중심	25.9	10.7	7.0	-1.1	-4.0	-3.8	-3.1	1.0	<p>75-80 80-85 86-90 90-95 95-00 00-05 05-10 10-15</p> <p>[기간별 성장단계 : 부산·울산권]</p> <p>→ 주변지역의 지속적 성장</p>
	주변	18.3	12.8	16.0	13.1	6.3	4.7	2.9	5.6	
	전체	23.0	11.5	11.0	4.5	0.4	0.0	-0.3	3.2	
	중심	++	+	+	-	-	-	-	+	
	주변	+	++	++	+	+	+	+	++	
	전체	++	+	+	+	+	+	-	+	
대구권	중심	22.1	13.9	10.0	5.4	0.0	-0.6	-0.7	0.8	<p>75-80 80-85 86-90 90-95 95-00 00-05 05-10 10-15</p> <p>[기간별 성장단계 : 대구권]</p> <p>→ 중심도시의 인구집중화 이후 대도시권 전체 쇠퇴기 과정을 거쳐 다시 성장기 진입</p>
	주변	-7.6	-4.5	-1.0	3.4	0.0	2.4	2.8	5.7	
	전체	10.2	7.8	7.0	4.9	0.0	0.2	0.3	2.3	
	중심	+	+	+	++	.	-	-	+	
	주변	-	-	-	+	.	+	+	++	
	전체	+	+	+	++	.	+	+	+	
광주권	중심	16.0	21.7	9.3	10.4	7.6	4.8	4.1	1.8	<p>75-80 80-85 86-90 90-95 95-00 00-05 05-10 10-15</p> <p>[기간별 성장단계 : 광주권]</p> <p>→ 중심도시의 도시화 과정 이후 주변지역의 인구성장기 진입</p>
	주변	-16.0	-12.6	-11.8	-25.0	-4.8	-12.7	-9.2	7.8	
	전체	1.0	7.9	2.4	0.5	5.0	1.5	1.9	2.7	
	중심	+	+	+	+	+	+	+	+	
	주변	-	-	-	-	-	-	-	++	
	전체	+	+	+	+	+	+	+	+	
대전권	중심	26.0	17.3	11.3	21.2	7.6	5.5	4.1	2.4	<p>75-80 80-85 86-90 90-95 95-00 00-05 05-10 10-15</p> <p>[기간별 성장단계 : 대전권]</p> <p>→ 중심도시의 도시화 과정 이후 최근 대도시권 성장 진입</p>
	주변	-4.0	0.1	5.0	-4.0	3.9	2.2	4.0	11.1	
	전체	6.0	7.1	7.8	7.6	5.8	3.9	4.0	6.5	
	중심	+	++	++	+	++	++	++	+	
	주변	-	+	+	-	+	+	+	++	
	전체	+	++	++	+	++	++	++	+	

주: 성장단계 ① 중심도시 인구성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주변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나 대도시권 전체의 인구는 절대적으로 성장.
 성장단계 ② 주변지역의 인구가 성장하고, 중심도시는 주변지역보다 인구성장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대도시권은 크게 성장.
 성장단계 ③ 중심도시의 성장보다 주변지역의 인구성장이 높음.
 성장단계 ④ 중심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나 주변지역의 인구성장으로 대도시권 전체는 성장.
 성장단계 ⑤ 중심도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주변지역의 인구는 성장하나 대도시권 전체는 감소.
 성장단계 ⑥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모두 인구감소(권용우 외 2016 참고하여 재정의).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4) 소결

- 인구 관련 자료는 습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대도시권 변화과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분석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권용우 2001, 40)
-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인구 변화 양상에 대하여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1995년과 2015년도를 기준으로 인구분포 특성을 비교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분포 특성은 대도시권별 유사성과 차이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주로 수도권과 부산·울산권이 유사성을 가졌고, 대구권·대전권·광주권은 각각 다른 인구분포 패턴을 나타냄
 - 우선 수도권과 부산·울산권은 중심도시의 인구감소와 주변지역에서의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주요 생산가능인구인 청소년과 청·장년층의 인구 또한 중심도시의 인구감소와 주변지역에서의 인구증가를 보이며 주변지역으로의 도시 이심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 대구권은 1995년보다 2015년도에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모두 인구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주요 생산가능인구 연령인 30-64세의 인구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모두 전국 인구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광주권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분포 패턴이 5개 대도시권 중 가장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심도시의 인구증가와 주변지역의 인구감소가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중심도시로의 지속적 집중 패턴이 관찰됨
 - 대전권은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모두에서 인구가 증가했는데, 연령별 전국인구 비중 또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에서 모두 65세 미만 인구들이 집중하며 성장해온 것으로 확인됨
- 국내 대도시권은 대도시권별로 주변지역으로의 이심현상, 중심도시의 지속적 성장 혹은 쇠퇴, 역도시화 단계 등이 시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2015년 최근에는 5개 대도시권 모두 주변지역 인구가 성장하는 인구분포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됐음
 - 수도권과 부산·울산권은 주변지역의 지속적 인구증가와 중심도시의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대구권은 중심도시의 인구집중화 현상 이후 대도시권 전체가 쇠퇴하는 과정을 겪었음
 - 광주권과 대전권은 중심도시의 도시화 과정 이후 최근에 들어 주변지역이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했는데, 특히 광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입지로 인한 나주시의 인구증가로 2015년도에 주변지역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됨

03 대도시권의 공간적 분화 과정

1) 개요

- 앞서 2장에서는 대도시권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분포 변화 분석을 통해 대도시권의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5개 대도시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러한 대도시권의 성장은 새로운 거주기능의 필요성 외에도 주변지역에서의 새로운 산업 기능 확대를 요구하며 대도시권 내 기능분화를 통해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키게 될 것임
 - 또한 도시구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대도시권 성장단계에서 국내 대도시권 발전방안 마련에 중요한 관점임
- 3장에서는 인구총조사 표본부문 통근·통학 자료를 활용하여 통근·통학권²⁾ 시계열적 변화추이를 분석을 통해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공간분화 과정을 관찰하고, 대도시권별 주변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을 가늠해 봄

2) 수도권

- **(통근·통학권 확장)**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는 수도권의 통근·통학권은 1980년대부터 이미 서울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5년도에는 60km 권역 내 가평균이 5.9%의 통근·통학률을 보이는 등 통근·통학권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감
 - 1980년대까지 서울로 출근하는 통근자율이 5% 이상인 지역은 30km 권역 내 집중되어 있는데, 1995년에는 안산시, 동두천시, 용인시 등에서도 서울로의 통근자율이 5% 이상을 나타냄
 - 수도권 1기 신도시 지역(성남, 고양, 안양, 부천, 군포)을 포함하여 경인축과 경수축을 중심으로 한 서울 남동부 지역으로의 통근권 확산이 나타남

2) 통근권은 (대)도시권을 확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주로 중심도시로의 통근자율이 거주취업자의 5% 이상인 지역 등을 확정의 기준으로 삼음. 이 연구는 대도시권을 확정하는 연구는 아니므로 통근율 5%의 기준은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도시세력권을 나타내는 참고기준으로만 삼고 접근함

- 이후 2005년에는 용인시 20.8%, 양평군 7.0% 등 50km 권역까지 통근·통학권이 확대, 2015년에는 용인시 17%, 화성시 5.3%, 양평군 13.2%, 가평군 5.9% 등 거주교외화 현상이 60km 권역까지 확대되며 포천, 오산, 이천, 연천, 평택, 여주, 안성시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서울의 통근·통학권 범위에 포함됨

표 8 서울시로 유입되는 수도권의 통근·통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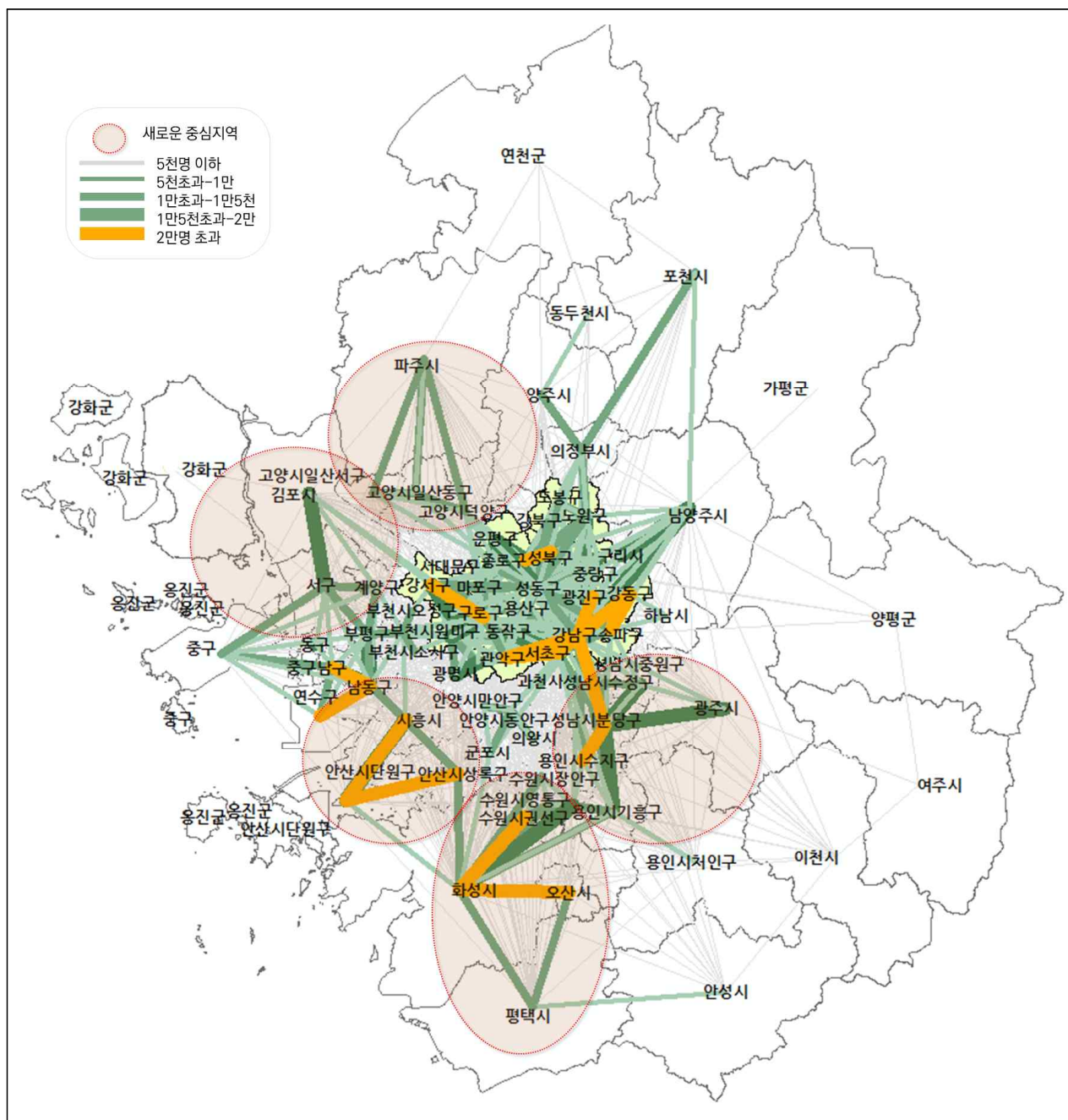
범위	지역	1980년	1995년	2005년	2015년
10~20km	구리시	-	37.5	35.8	36.2
	광명시	-	48.9	42.3	39.4
	과천시	-	53.4	42.6	40.0
	고양시	43.4	50.8	32.4	30.0
	안양시	24.0	28.5	24.9	23.2
	의정부시	22.1	28.9	32.0	29.4
20~30km	부천시	31.4	28.3	24.0	24.8
	성남시	27.0	34.4	29.1	26.4
	하남시	-	45.8	40.2	36.4
	남양주시	31.2	30.1	30.0	30.6
	군포시	-	29.4	22.0	19.4
	김포시	9.8	13.7	19.5	23.8
	의왕시	-	25.7	22.4	21.3
	양주시	9.0	7.7	15.4	15.3
	시흥시	38.6	17.9	10.2	8.1
	인천시	10.3	10.6	10.6	11.7
	파주시	-	12.2	13.2	12.7
	광주시	22.4	9.8	17.8	13.6
30~40km	안산시	-	9.1	8.1	7.3
	수원시	8.5	6.8	8.6	9.7
	동두천시	-	9.3	7.5	9.5
40~50km	용인시	-	8.2	20.8	17.0
	포천시	-	2.7	3.8	3.8
	화성시	-	1.5	4.2	5.3
	양평군	-	3.4	7.0	13.2
	오산시	-	2.8	3.5	4.6
50~60km	이천시	-	1.5	1.9	2.1
	가평군	-	4.7	3.0	5.9
	연천군	-	3.9	2.0	2.4
60km 이상	평택시	-	2.9	2.0	2.2
	여주시	-	1.0	1.1	2.1
	안성시	-	1.6	1.7	1.8

주: 범위는 서울특별시청 기준 반경범위임.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 (새로운 중심지역 형성) 고양시, 성남시, 안산시, 화성시 등 새로운 중심지역 형성

- 수도권 전체 통근·통학인구는 2015년도 기준 총 1,433만 9천 명이며, 이중 약 10.2%의 경기·인천 거주자 146만 8천 명이 서울로 통근·통학하고 있음
- 이 중 고양, 성남, 안양, 군포, 부천 등 서울시와 연접해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점차 서울로의 통근통행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 후반 제1기 신도시 건설은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서울로의 높은 통근·통학률을 나타냈지만, 고양시의 경우 1995년 50%이던 서울로의 통근·통학률이 2015년에는 30%대로 감소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며 기능분화 과정을 거침

그림 4 수도권 통근통행량(2015년)



주: 시·군·구별 역내 통행량은 제외했음.
출처: 저자 작성.

- 이와 같이 서울시 인접지역 통근·통학률은 감소하는 동시에, 고양시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서울 외 인접해 있는 타 지역인 파주시와 광주시 등과의 통근·통학률이 증가하며 서울시 외의 제2차 통근·통학권을 형성하는 등 새로운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산-시흥, 화성-오산-수원, 성남-광주 간 두텁게 형성된 통근·통학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화성-오산, 성남-광주 간의 통근·통학률은 1995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10% 가까운 증가를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최근 통근·통학 패턴의 또 다른 양상은 서울시와 바로 연접한 주변 지역의 서울로의 통근·통학률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지역 전체의 서울로의 통근·통학률은 1995년 9%에서 2015년 10.2%로 증가한 점임
 - 서울로의 통근·통학권이 서울시와 연접한 주변지역에서 원거리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9 서울 외 주요 통근·통학 지역의 통근·통학률 변화 및 특성

주요 통근·통학 지역	통근·통학률 변화 및 특성		
	1995년	2015년	특성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 → 고양 5.6% ※ 파주 → 서울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 → 고양 12.6% ※ 파주 → 서울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시의 고용교외화 • 고양 - 파주 간 연계 강화
성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 성남 6.6% • 용인 → 성남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 성남 16.6% • 용인 → 성남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 - 광주, 성남 - 용인 간 연계 강화
시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 → 시흥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 → 시흥 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 - 안산 간의 연계 강화
안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 → 안산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 → 안산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흥 - 안산 간의 연계 강화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 → 화성 8% • 수원 → 화성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 → 화성 19.6% • 수원 → 화성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고용 교외지역으로 화성시 - 오산시 - 수원시 통근·통학권 강화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3) 부산·울산권

■ **(통근·통학권 유지)** 부산시는 인접한 김해시, 양산시와 1980년대부터 밀접한 통근·통학권을 형성해 왔으며, 최근까지 20km 권역 내 통근·통학권을 유지

- 부산시 인접 시·군 중 김해시, 양산시의 부산시 통근·통학률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시·창원시·밀양시의 부산시 통근·통학률은 5% 이하로 나타남
- 지정학적으로 부산시는 인접 시·군 개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군 중에서도 울산시는 공업도시로서의 자족도시 성격이 강하여 전체 역외 통근률이 2.3%에 그치는 등 부산시로의 통근·통학률이 높지 않음

표 10 부산시로 유입되는 부산·울산권의 통근·통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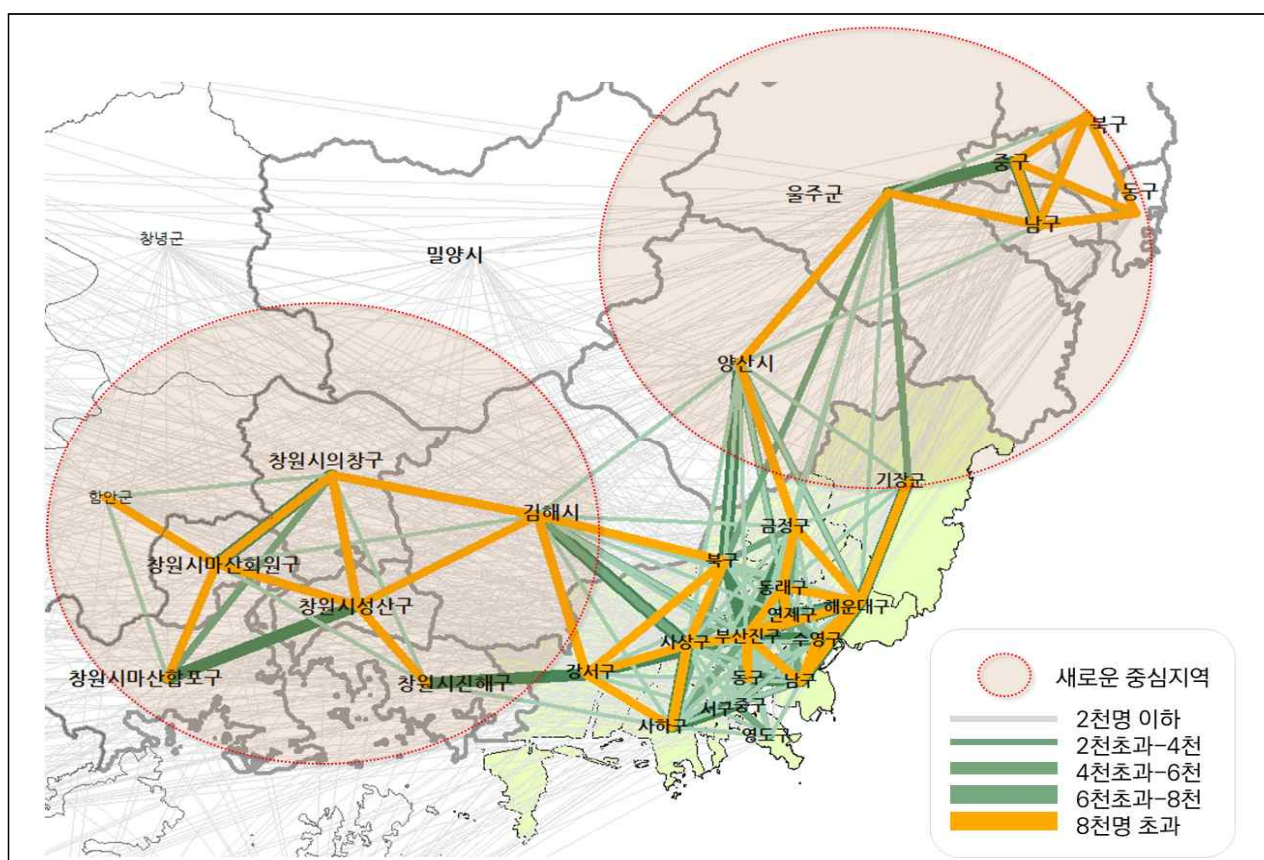
범위	지역	1980년	1995년	2005년	2015년
10~20km	김해시	13.5	16.3	14.5	11.5
	양산시	15.2	20.9	16.7	17.9
30~50km	울산시	0.5	0.9	0.9	1.4
	창원시	0.4	1.1	1.1	2.9
	밀양시	-	2.4		2.4

주: 범위는 부산광역시청 기준 반경범위임.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 (새로운 중심지역 형성) 양산-울산, 김해-창원-함안 등 새로운 중심지역 형성

- 부산·울산권의 전체 통근·통학 인구는 2015년도 기준 총 361만 6천 명이며, 약 2.5%의 주변지역 거주자 9만 1천 명이 부산시로 통근·통학하고 있음
- 김해시의 부산 통근·통학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양산시의 부산 통근·통학률은 15~17%대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나, 기장군 개발 등의 최근 여건이 기장군과 가까운 양산시의 부산 통근·통학률을 높이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됨
- 부산·울산권의 경우도 수도권과 같이 양산-울산, 김해-창원-함안 등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의 통근·통학권이 강화되어 나가는 패턴이 나타나며 다핵 대도시권 형태를 보임

그림 5 부산·울산권의 통근통행량(2015년)



주: 시·군·구별 역내 통행량은 제외했음.
출처: 저자 작성.

표 11 부산 외 주요 통근통학지역의 통근·통학률 변화 및 특성

주요 통근·통학 지역	통근·통학률 변화 및 특성		
	1995년	2015년	특성
울산시	• 양산 → 울산 5.8%	• 양산 → 울산 7.1%	• 양산-울산 간 연계 강화
창원시	• 김해 → 창원 4.6% • 함안 → 창원 9.0%	• 김해 → 창원 9.4% • 함안 → 창원 15.8%	• 김해-창원-함안 통근· 통학권 강화
김해시	• 부산 → 김해 1.5%	• 부산 → 김해 2.5%	• 부산시에서 김해시로의 통근·통학률 증가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4) 대구권

■ (달성군 개발 등 통근·통학권 확산) 대구시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경산시·칠곡군과의 통근·통학권 연계성이 강하지만 점차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고령군에서의 통근·통학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인접해 있는 달성군-고령군과의 통근·통학 연계성 강화에 기인한 결과임

- 대구시로의 통근·통학률이 가장 높게 형성된 지역인 경산시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성주군과 고령군의 통근·통학률은 5%를 넘으며 대구권의 통근·통학률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성서5차첨단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의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표 12 대구시로 유입되는 대구권의 통근·통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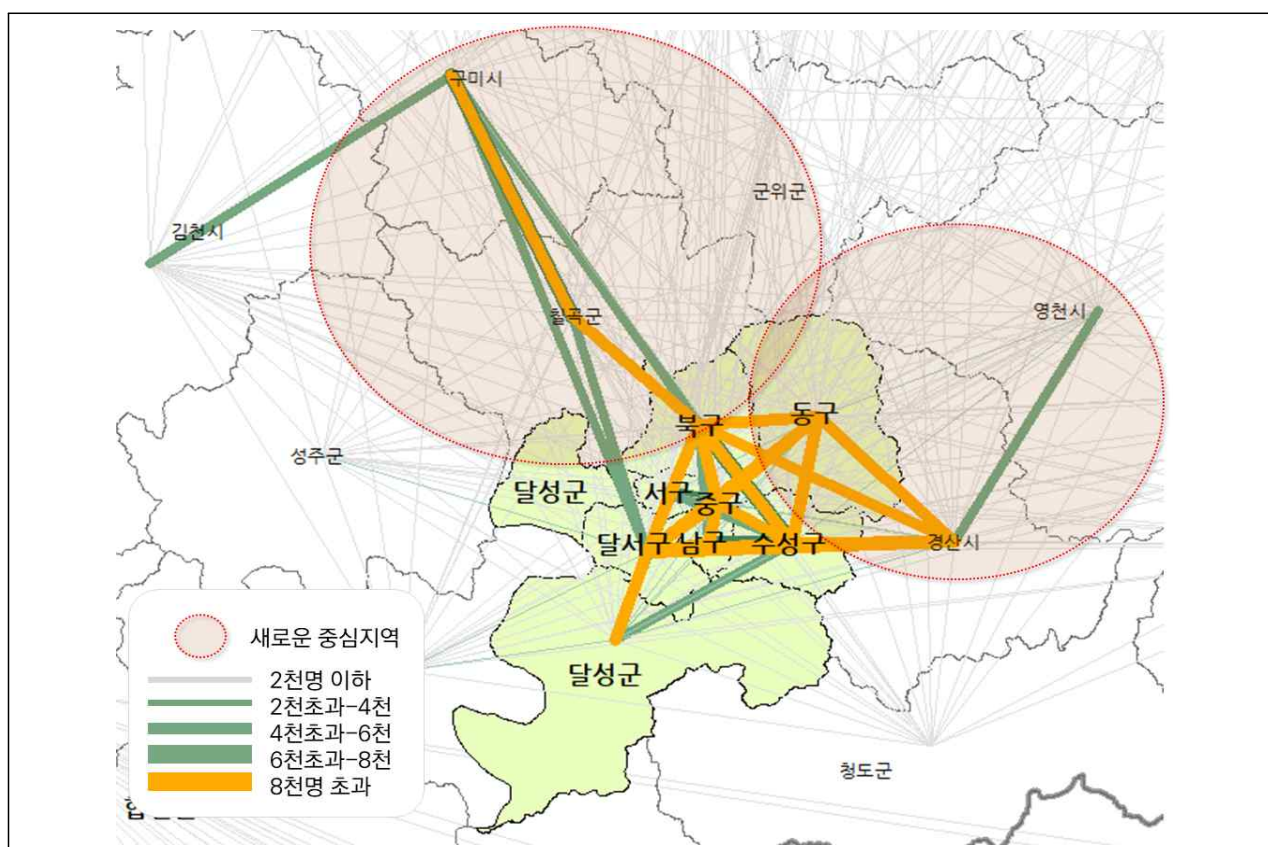
범위	지역	1980년	1995년	2005년	2015년
10~20km	경산시	20.6	17.3	19.8	16.0
20~30km	칠곡군	19.6	9.5	6.6	6.0
	청도군	-	2.4	2.9	4.4
	성주군	-	3.2	4.3	5.2
30~50km	영천시	-	3.4	2.3	2.3
	구미시	1.6	1.4	1.2	1.6
	군위군	0.4	-	2.6	2.2
	고령군	-	7.9	8.1	15.2

주: 범위는 대구광역시청 기준 반경범위임.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 (새로운 중심지역 형성) 구미-칠곡, 경산-영천 등 새로운 중심지역 형성

- 대구권의 전체 통근·통학 인구는 2015년도 기준 총 152만 7천 명이며, 약 2.02%의 주변 지역 거주자 4만 명이 대구시로 통근·통학하고 있음
- 대구시와 이격해 있는 구미시는 대구권의 중요한 고용 창출 역할을 해왔으며, 인접해 있는 칠곡군과는 통근·통학률이 증가하며 강한 연계성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대구 중심도시 외 영천시와 경산시 간의 통근·통학 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영천시는 대구로의 통근·통학률이 2.3%인 것에 비해 경산시로의 통근·통학률은 5.3%임

그림 6 대구권의 통근통행량(2015년)



주: 시·군·구별 역내 통행량은 제외했음.

출처: 저자 작성.

표 13 대구 외 주요 통근·통학지역의 통근·통학률 변화 및 특성

주요 통근·통학 지역	통근·통학률 변화 및 특성		
	1995년	2015년	특성
구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천 → 구미 5.2% 군위 → 구미 7.6% 칠곡 → 구미 1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천 → 구미 5.2% 군위 → 구미 1.4% 칠곡 → 구미 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곡-구미 간의 통근·통학권 형성
경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천 → 경산 4.8% 대구 → 경산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천 → 경산 5.3% 대구 → 경산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천-경산 간 연계 강화, 대구-경산 간 연계 약화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5) 광주권

- **(중심도시로의 집중)** 광주시는 대도시권 중 가장 작은 면적의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시에, 광주시를 단핵으로 둘러싼 화순군, 장성군, 나주시, 담양군, 함평군이 주변지역을 형성하고 있음
 - 1980년대부터 함평군을 제외한 인접 시군과의 광주권 통근·통학률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2015년에는 함평군의 통근·통학률도 5%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5개 주변지역 모두 광주시로의 통근·통학률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임

표 14 광주시로 유입되는 광주권의 통근·통학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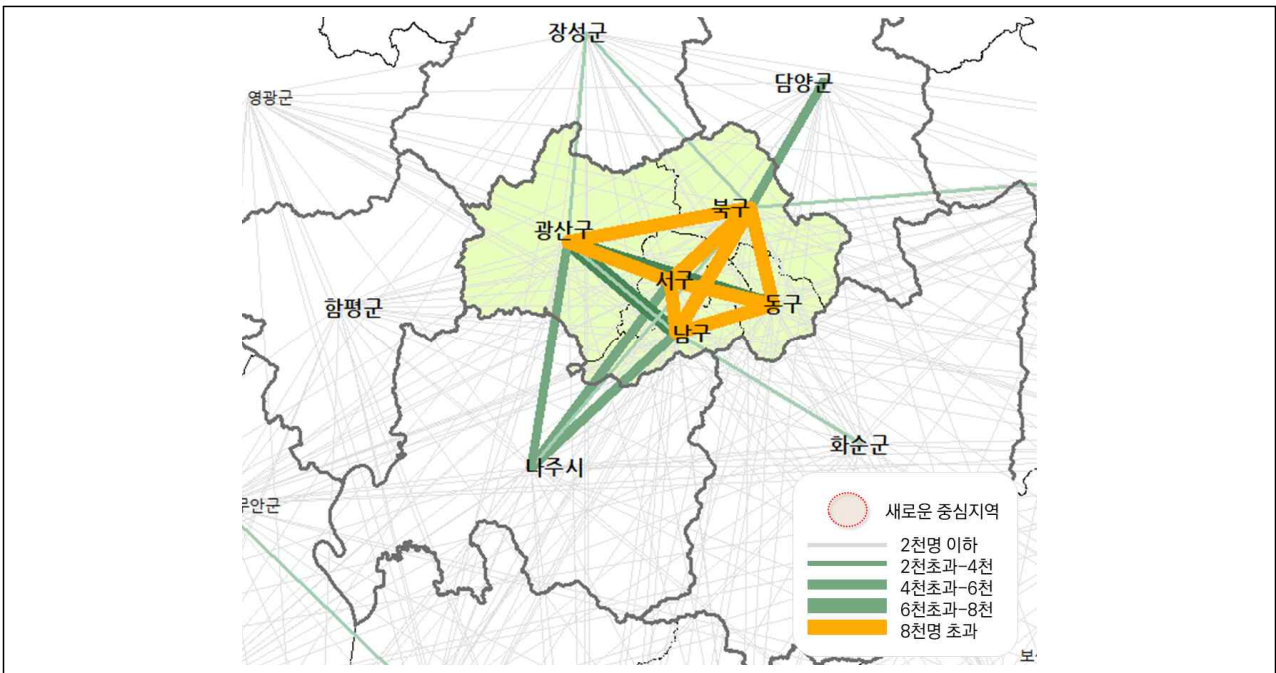
범위	지역	1980년	1995년	2005년	2015년
10~20km	화순군	13.3	16.7	19.7	18.1
	장성군	8.0	10.9	11.9	12.3
20~30km	나주시	7.1	8.5	9.0	8.8
	담양군	10.7	18.6	16.1	17.4
30~40km	함평군	1.0	3.0	2.7	4.5

주: 범위는 광주광역시청 기준 반경범위임.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 **(새로운 중심지역 부재)** 광주시를 단핵으로 새로운 중심지역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광주권의 전체 통근·통학인구는 2015년도 기준 총 100만 5천 명이며, 약 1.9%의 주변지역 거주자 1만 9천 명이 광주시로 통근·통학하고 있음

그림 7 광주권의 통근통행량(2015년)



주: 시·군·구별 역내 통행량은 제외했음.
출처: 저자 작성.

6) 대전권³⁾

■ **(통근·통학권 강화)** 대전권은 세종시 건설, 도청소재지 청주시 등 다양한 인접시군 구성, 수도권과의 광역적 연계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도시권 중 대내외적 여건에서 가장 다양한 주변지역을 형성하고 있음

- 세종시, 계룡시, 옥천군 등 대전과 인접한 20km 권역 내 통근·통학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30km 권역 내에서는 금산군과의 통근·통학률이 5% 내외를 유지하며 연계성을 가짐
- 청주, 보은, 논산 등 30km 권역 내 통근·통학 연계성은 높게 나타나지 않음

표 15 대전시로 유입되는 대전권의 통근·통학률 (단위: %)

범위	지역	2000년	2005년	2015년
10~20km	세종시	4.5	6.3	11.9
	옥천군	7.0	8.0	8.6
	계룡시	17.6	16.2	18.9
20~30km	공주시	3.6	3.8	3.5
	금산군	5.0	4.1	5.7
30~40km	청주시	1.5	1.7	1.4
	보은군	0.7	0.2	0.6
	논산시	3.1	3.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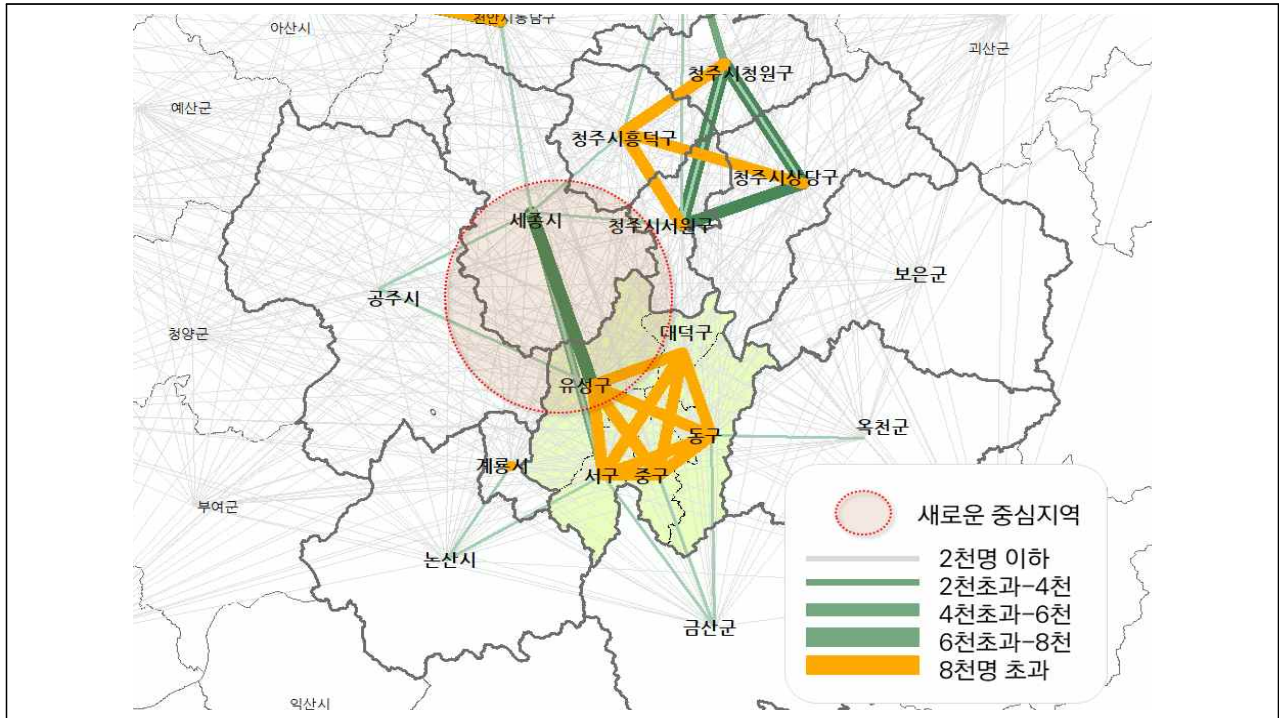
주: 범위는 대전광역시청 기준 반경범위임.
출처: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 **(새로운 중심지역 형성)** 세종-청주 등 새로운 중심지역 형성

- 대전권의 전체 통근·통학 인구는 2015년도 기준 총 170만 명이며, 이중 약 1.9%의 주변 지역 거주자 3만 3천 명이 대전권으로 통근·통학하고 있음
- <그림 8>을 보면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 간의 통근·통학 패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종시는 인접한 청주시(5.5%), 공주시(3.1%), 천안시(1.9%)와의 통근통행권을 일정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역외 통근율은 약 25%를 나타냄
- 대전권 내에서 대전시 다음으로 인구규모가 큰 청주시와 대전시의 통근·통학률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청주시는 대전시와의 통근·통학률이 1.4%인데 반해 세종시 1.6%, 진천군 2.4% 등 타 인접 시·군과의 통근·통학률이 대전보다 높게 형성되어 나타남

3) 대전시 통근·통학 관련 통계자료는 2000년대부터 통계 구축이 가능하여, 2000년도 통계자료로 대체

그림 8 대전권의 통근통행량(2015년)



주: 시·군·구별 역내 통행량은 제외했음.
출처: 저자 작성.

7) 소결

■ 이상 5개 대도시권별 통근·통학권 자료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대도시권별 통근·통학 규모와 지역 간 연계성의 차이는 있었지만, 광주권을 제외한 대도시권에서는 중심도시가 단핵이 아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통근·통학권이 형성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즉, 주변지역이 중심도시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권 내 주변지역 자체로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며 독립된 새로운 권역을 형성해 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남
- 이는 1995년과 2015년도 통근·통학률을 비교하여 일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통근·통학률이 증가하는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수도권은 고양-파주, 광주-성남-용인, 시흥-안산, 수원-화성-오산, 부산-울산권은 울산-양산, 김해-창원-함안, 대구권은 구미-칠곡, 경산-영천, 대전권은 청주-세종-공주 지역이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중심지역으로서 도시세력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는 달리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학 의존도가 가장 높은 권역은 광주권인데, 이는 중심도시로의 통근·통학률 집중 현상과 동시에 일자리가 집적된 주변지역이 아직은 부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최근 나주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향후 나주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 연계성이 확대될지 유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04 결론 및 시사점

- 이 연구는 대도시권 내 중심도시인 대도시보다는 중심도시를 둘러싼 주변지역에 관심을 두고, 최근 주변지역의 인구성장 변화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탐구를 주요 초점으로 두고 진행
 - 1960년대 본격화된 개발시대에 동반되어 성장해온 국내 5대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들의 역사도 60년을 넘어서고 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대도시 주변지역은 기본적으로 중심도시의 기능이 주변지역에 원심적으로 확대되는 현상과 과정이라는 이론과 함께, 정책적 결정에 의한 산출물이라는 결과론적 시각에 맞물려 주변지역의 역할 자체를 대도시권 베일 속에 한정시킨 경향이 있어 왔음
- 이 연구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관계적 탐구를 위해 산업구조, 토지특성 등 다변수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인구학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분포의 확산 특성과 최근 주변지역의 공간적 분화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공간적으로 분화되어가는 과정은 주변지역이 중심도시와 주거·고용·서비스 등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업해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의 수평적인 공간적 분업의 관계 형성은 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권 관계망과 메커니즘을 형성 시킬 것임
 - 국내 대도시권이 공간적 분화 과정 속에서 해체(쇠퇴, 갈등)되지 않고, 통합(성장, 화합)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지역의 체계화된 관리와 계획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 필요
 - 대도시권 이론은 오래된 주제이지만 국내에서 실제 정책화된 경험은 없음
 - 살펴본 바와 같이 성장해가는 대도시권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 간 협력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도시권 계획 수립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별 성장단계와 공간범위 및 연계성의 정도 등이 상이하므로 대도시권별 장소 기반의 차별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세종: 국토교통부.

권용우. 2001. 교외지역. 대전: 아카넷.

권용우·김세웅·박지희 외 공저. 2016. 도시의 이해. 서울: 박영사.

김현수·이영성·유정훈·이수기·우명제·이주일·이종현·이상대·이동현·정현욱·최형욱. 2019. 대도시권계획의 필요성과 실천전략. 도시정보 443호: 4-20.

김홍순. 2019. 미국 대도시권의 현재 : 52개 대도시권 센서스 자료에 대한 거시적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제53권 1호: 1-20.

이희열·주미순. 2007. 부산광역시권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167~181.

통계청. 각 연도. 인구총조사. 대전: 통계청.

Klaassen, L.H & Paelinck, J.H., 1979, The Future of Large Towns. *Environment & Planning A* 11, no. 10: 1095-1104.

국토연구원 Working Paper는 다양한 국토 현안에 대하여 시의성 있고 활용도 높은 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험정신을 가지고 작성한 짧은 연구물입니다. 투고된 원고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발간되며, 외부 연구자의 투고도 가능합니다. 공유하고 싶은 새로운 이론이나 연구방법론, 국토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국내외 사례 연구나 비교연구 등 국토분야 이론이나 정책에 도움이 될 어떠한 연구도 환영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044-960-0582, jhkim@krihs.re.kr)으로 연락주십시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WP 20-04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성장단계와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

연 구 진 유현아
발 행 일 2020년 7월 28일
발 행 인 강현수
발 행 처 국토연구원
홈 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20,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출판인협회에서 제공한 KoPub 서체와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제공한 바른바탕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